



“마흔 살에 그림 시작한 뒤 17년 만에  
처음 받은 상이라 어떨떨하네요”

권위 있는 이종섭 미술상 후보로 오른 줄도 몰랐다.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17년의 화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인'라고 표현한 윤석남 씨(57). 영화감독 고 윤백남 씨의 딸인 그녀가, 행상하며 6남매를 키운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감정과 뒤늦은 나이에 붓을 잡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제8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한 서양화가

# 윤석남

## “한국적 정서 담은 ‘어머니’ 연작에 높은 점수 준 것 같아요”

서울 서초구 서초역 근처 한 아파트 지하실을 작업실로 쓰고 있는 윤석남 씨를 찾았다. 작업실은 설치 미술을 하는 그녀의 작업 성격에 어울리게 어지러웠다. 작업복 차림인 듯 ‘몸빼 바지’를 입은 그녀는 축하하러 찾아온 손님과 연이은 전화통화로 바빴다. 얼굴에 미소를 함뱍 담은 그녀는 ‘똥밖의 수상’이라며 기쁨의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였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 축하드립니다.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벼락을 맞은 것처럼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걱정이 많아요. 이중섭 미술상은 자기 세계를 갖고 일가를 이룬 분들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나이는 많지만 화력은 짝아요. ‘신인’ 된 기분으로 열심히 해야겠죠. 물론 행복해요. 상이라곤 처음이거든요.”

—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중섭 선생은 가족에 대한 절절한 애정과 그리움을 한국적인 정서에 담아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인데 아마 제 작업에 들어있는 그런 요소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중섭 선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연민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끔찍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분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 아내와 떨어져 살며 말년에 거식증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죠. 화가는 숙명적으로 병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림에는 힘이 있잖아요. 과연 제가 이중섭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 윤 선생님의 가족사도 평범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나라 최초의 극영화라고 평가되는 ‘월하의 맹세’를 만든 윤백남 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화 세 편을 찍고, 재산을 다 날린 뒤 소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나이 16세 때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다하셨지요. 저희 6남매를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 영화감독 부친의 예술적 재능과 어머니의 강인함 물려받아

윤석남 씨는 만주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서울로 이사를 했다. 부친 윤백남 씨는 최초의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가난한 문사에 지나지 않았다. 영화가 안되자 역사 소설을 써서 생활했다. 한때 ‘대도전’ ‘흑두건’ 등을 신문에 연재하면서 필명을 날렸다. 그의 소설에는 가난한 민중들을 돕는 영웅적인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윤석남 씨는 부친이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민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었다고 회상한다. 부친은 요즘 SBS TV에서 방영되는 ‘임궐정’의 원작자 홍명희 씨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홍명희 씨는 6·25때 인민군에 의해 총살될 뻔했던 윤백남 씨를 구해 주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아버지의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예술적 감성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지금도 영화를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1955년 서라벌 예대 학장이었던 아버지가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집안 살림만 한 어머니가 팔 걷어붙이고 바깥으로 나서야 했다. 6남매 뒷바라지를 혼자 해야 했기 때문이다. 윤석남씨는 3남3녀 중 둘째로 당시 사대부고 1학년이었다. 위로 언니가 이화여대 영문과 1학년생이었고, 동생들은 중학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순노동밖에 없었다.

공장에도 나가고, 밭일도 하고, 행사도 했다. 살림만 하던 어머니가 육체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학 다니던 언니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신문사 기자로 들어가 집안 살림을 도왔다. 윤석남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다. 당시 한국전력 고문이었던 작은아버지 윤효중 씨의 소개로 한국전력에 들어갔다. 윤효중씨는 공학 박사로서 전쟁 전 수풍발전소 소장이었던 사계의 원로였다.

윤석남 씨는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성균관대 영문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재미를 못 붙이고 2년 만에 중퇴했다. 다시 직장생활을 하다 스물여덟

살에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고 집안에 들어앉았다. 남편 이홍배 씨는 공과 대학을 나와 현재 엔지니어링 계통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 전업 주부로 생활하다 마흔이 되어 그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전에 붓글씨를 한 4년 동안 배웠습니다. 우연히 시인 박두진 선생을 만나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집안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이게 사는 건가 회의가 생겼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

는 어디로 가버린 거죠. 가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사는 일이 얼마나

고통 스러워요. 뭔가 불안하고 매사 짜증나고 무력감에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좋아졌어요. 그런데 붓글씨를 하면서 자유를 느꼈어요. 글쓰기가 날 치료한 셈이지요. 그러다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지더군요. 그림은 자연스럽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 밥하고 빨래하는 일에 진저리쳐 “그림 그리지 않으면 숨막힐 것 같아”

붓글씨를 하다보니 한학 공부도 소홀히 해서 안되었다. 그녀는 한학 교실에 청강생으로 열심히 다니기도 했다. 그 무렵 통감절에서부터 맹자, 공자를 익혔다. 그러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그림 그려볼 생각 없냐고 슬쩍 물어본 것에 자극을 받았다. 내재돼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 불붙은 것이다. 붓글씨는 하나의 워밍업이었던 셈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중학교 때 세계 미술대회에서 입상했고, 부통령상도 받았어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상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전교생 앞에 나가 상을 받

는 게 되게 쑥스럽게 생각이 들어 결석한 거죠. 대학 들어갈 때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미술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만두었어요. 뒤늦은 나이에 화구를 사서 이종무 선생님이 하시는 화실에 나갔어요.”

79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녀는 3년 뒤 미술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윤석남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 개인전은 어머니를 주제로 한 구상화였다. 남편을 여의고 지식들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느라 안 해본 고생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 첫 개인전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단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칠딱서니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첫 개인전이니깐 긴장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별 두려움도 없이 치렀어요. 신인다운 태도가 아니었던 거죠. 학연이고 뭐고 없으니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반응은 좋았어요.”

— 두 번째 개인전을 93년에 가졌죠? 첫 개인전에 이어 공백기간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첫 개인전을 열고 나서 뉴욕으로 건너가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판화를 공부하고 돌아와 ‘인간전’ ‘여성과 현실전’ 그룹전에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80년대 말 그림에 대한 심한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은 슬럼프에 빠진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당시 민중 미술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다. 예술은 생활과는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예술과 현실이 부딪혔다. 예술의 개념에서부터 혼란이 왔고, 현실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술의 연약함에 진저리가 나기 시작했다. 작업하기가 싫어지고, 사는 게 기생충처럼 느껴졌다. 잠시 이 땅을 떠나고 싶었다. 그녀는 89년 딸이만 데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아이 학교 보내고, 혼자 갤러리를 찾아 쏘다녔다. 3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그녀는 미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도 했다.

91년, 귀국해서는 새로운 기분으로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자유스럽고, 겁매이지 않은 정신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편도 이 즈음에서는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해 주었다. 그는 “당신이 가장 위해 일



① 오랫동안 '어머니'는 그녀의 화두였다. 남편을 여의고 6남매를 홀몸으로 키웠던 어머니의 인고의 삶은 그녀의 그림으로 되 살아났다. 1993년작 '어머니, 열아홉살'.  
② 현대여성의 불안한 내면세계를 설치작업으로 표현하는 윤석남 씨의 최근 작품이다



해왔으니 이제 당신의 세계를 일구는 데 도와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심기일전했다.

"그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대한 깊이도 느꼈구요. 작업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죠."

93년에 '어머니'라는 타이틀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이 때까지 어머니는 그녀의 화두였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내재되어 있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한국 여인의 인고의 삶에 대해 세삼 감동을 받기도 했다.

—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어머니를 계속 그린 동기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요. 대체로 딸은 자라면서 어머니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끊임 없이 당신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고, 또 그게 즐거운 걸요. 나이 들면서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암전해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지만 강하고 활달하며 열정적인 분이시죠. 초등학교만 나오셨지만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 등 러시아 문학을 즐겨 읽으신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보다 어머니한테서 예술적 감성을 더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그린 것은 당신에 대한 특별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에게 우리 여성들의 속성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수원시 큰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있다.

## '어머니'에서 '나'에게로 주제 변모 불안정한 여성의 심리 표현에 중점

— 93년 두 번째 개인전 이후 작품 세계가 크게 변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머니 주제에서도 벗어났고요?

"평면 구성에서 입체 구성으로 변했죠. 공간 구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설치적 요소가 들어갔어요. 평면보다는 입체 공간이 더 드라마틱하고, 오브제도 많이 쓰게 되니까 관객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주제도 어머니에서 나에게로 바꿨는데 10여 년 간 어머니를 그리다보니 탈진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성인 저 자신의 얘기를 통해 여성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주제가 달라진 건 크게 없다고 봐요. 결국 여성이라는 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밤과 낮 사이 라는 그녀의 최근 작품을 보면 붉은색 공간에 소파를 비롯한 가구들이 몇

개 놓여 있고, 바닥에는 둥근 유리 구슬과 각진 유리 조각이 깔려 있다. 소파에는 뽀족한 쇠꼬챙이가 날을 세우고 있고, 소파의 다리 또한 뽀족하게 깎여 있다. 그녀의 최근 작품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내면풍경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잘 모르는 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요? 여자들은 제 작품을 보면 '아!' 하고 이해하겠다고 하던데요? 남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남자를 위해 그녀가 설명을 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불안정한 여성의 상황을 뽀족한 쇠꼬챙이와 바다의 구슬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여성이죠."

여성의 의식, 무의식 세계를 입체 공간에 표현하는 그녀의 작업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호랑이 꼬리'를 비롯해 미국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통과 긴장전', 호주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의 '제2회 아시아 — 태평양 현대미술전',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90년대 한국 미술로부터 — 동성대의 이야기전' 등에 그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에서는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해외의 유명 갤러리에서 작품을 사준다는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17년 동안 그녀가 그림을 판 것은 단 두 점뿐이었다.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평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녀라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싶지 않으랴.

그녀는 학연도 없고, 상복도 없었던 지난 17년을 쓰디쓴 세월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주목을 받았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가정 주부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잘 하지 못한 점도 있다. 한때 남편과 불편한 관계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남편이 언젠가 사무실 여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결혼해서도 자기 일을 가져라. 그래야 서로 자



① 뉴욕시절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림에 심한 회의를 느꼈던 힘든 시기였다  
② 얼마 전부터 저 자신의 얘기를 통해 여성들의 불안한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그런 남편이 아내가 이중섭 미술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한 신문을 다섯 장이나 샀다며 즐거워했을 때 덩달아 기뻐한다.

산업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 3학년생인 딸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돌보지 않은 미운 엄마가 결국 뭐가 이루었다는 사실이 즐거운 모양이다.

"그림은 이기적인 세계예요. 남편과 아이가 눈에 안 들어오죠. 지금도 그렇지만 도시락 두 개를 싸서 아침에 나와 저녁 늦게 들어가니 주부 노릇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남편과 딸이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림 그리는 일 외에 그녀는 소설 읽기를 즐겨한다. 독일 작가 엔테와 영국 작가 루시디, 그리고 남미의 보르헤스의 작품들을 좋아한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한국적이라든가 페미니즘(여성주의)이라든가 하는 평가를 자신의 한계로 검혀하게 받아들인다. 한국적, 페미니즘적이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때 현실의 문제로 예술에 대한 개념 자체에 벽찬 회의를 느끼기도 했지만 예술은 분명 물질을 뛰어넘는 고양된 정신의 정화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계기를 '신인'에 대한 격려와 위로로 받아들인다는 윤석남 씨. 여인의 내면을 통해 한국 미술의 전통을 표현해 내려는 그녀의 새 작품들은 빠르면 내년 봄이 나가올이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

□ 글 / 신광식 기자  
□ 사진 / 정기락 기자